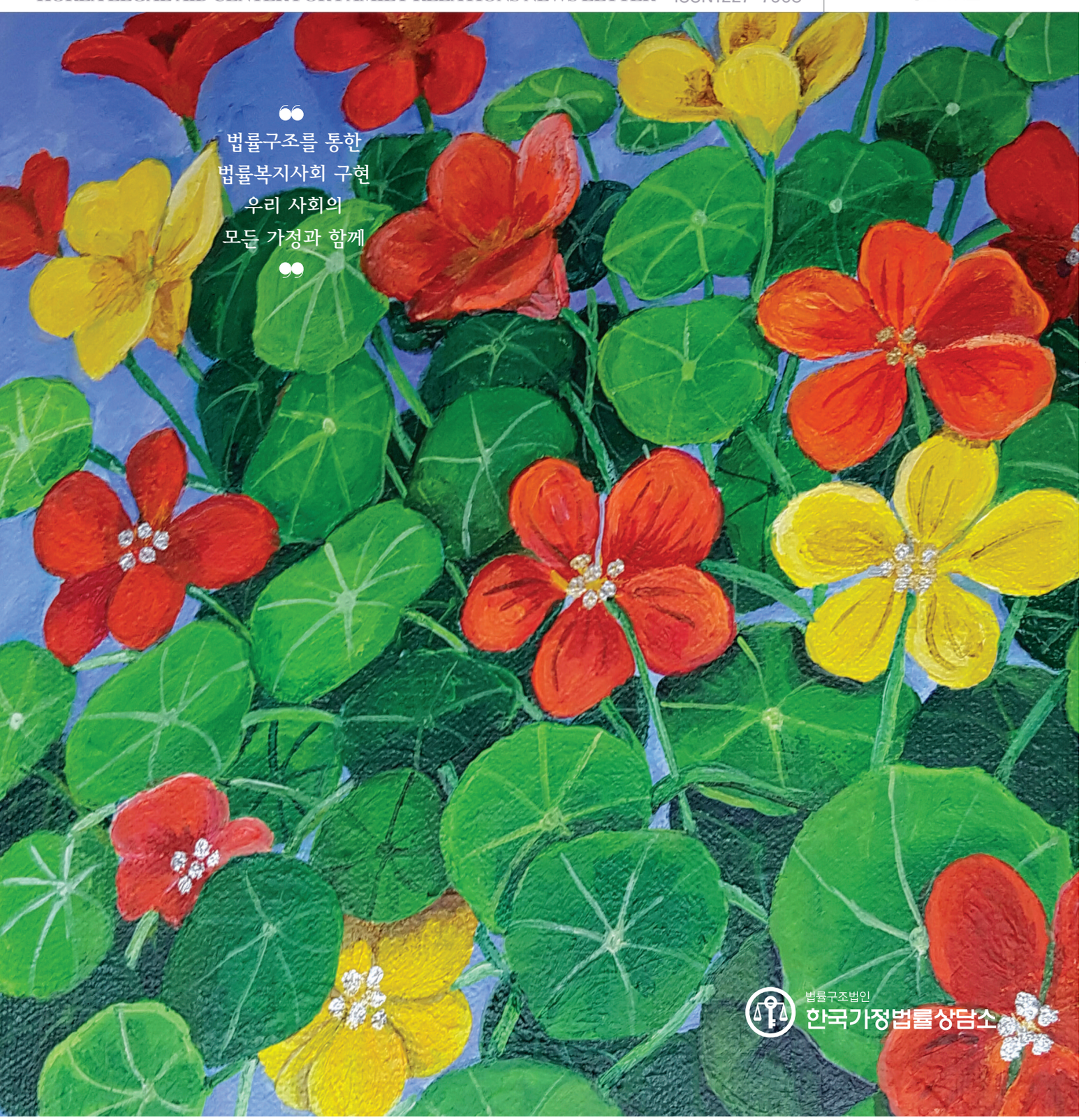
가정상담

2
2018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통권 41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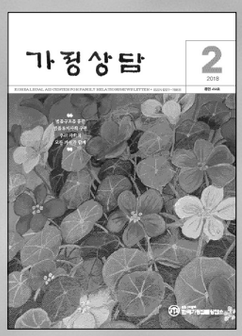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트위터▷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지난 1월 12일 본소 강당에서 2018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지부 신년 워크숍이 있었다. (관련기사 26면)

본소 교육부에서는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초 · 중 · 고 교원을 대상으로 15시간의 「법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관련기사 27면)

창립 62주년의 해를 맞아 본소 직원들은 법률구조사업의 내실과 안정적 활성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3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4 • 이 달의 메시지
6 • 특집 Ⅰ | 201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 • 특집 Ⅱ | 201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지부 신년워크숍 강연
14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❻
17 • 가정폭력상담실
20 • 인터넷 상담
21 • 좋은 책
세 여자 1,2
22 • 결혼과 인생(180) 영화이야기
굿' 바이 _ 김용언
24 • 임상실습 소감문
26 • 상담소 소식
30 • 지부 소식
32 • 상담통계
33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발행인 겸 편집인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곽배희 | 인쇄인 · 동아서적(주) 대표이사 이상업 | 발행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07239)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 가길 14 · 전화 1644-7077 · 전송 02-780-0485 | 1987년 1월 28일 제3종 우편물 (나) 인가 / 2018. 2. 10(매월 10일 발행) / ISSN 1227-7568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4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이 달의 메시지

진정한 복지국가를 향해 –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부터 노인복지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이 필요합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압축성장'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구 사회가 삼백년에 걸쳐 이룩한 변화를 삼십년 만에 겪으면서 필연적으로 심각한 문화지체를 겪게 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현재 노인세대는 피지배민족으로 태어나 전쟁을 직접 경험하고 격변의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편으로는 농경사회의 유교적 가부장제의 정서와 관습이 체화되어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오늘의 2, 30대를 놓고 생각해보면 그 정서적 간극이 얼마나 넓을 것인가, 도대체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중간에 놓인 4,50대 어쩌면 60대에 이르는 부모세대들은 일찍부터 자신들을 일컬어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이며 효도 받기를 포기하는 첫 세대' 라고 해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듯 같은 시대에 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그 배경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세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적 목표인 '복지사회' 는 이러한 사회 구성원들과 그 사회적 배경에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5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말 그대로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구성원 전체를 아우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선진 복지사회라는 국가적 목표는 특정한 정권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지난 시간들의 총체적인 문제가 이른바 오늘날 이야기되는 '적폐'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폐의 근절이란 결국 국가의 과제를 바로 세우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현재 심각하게 궤도에서 벗어나 있는 국가 사회의 각 구조들이 정상적인 궤도를 찾도록 하는 일일 것입니다.

새해 들어 기억에 남는 신문 기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노후도 부모의 노후도 내 몫"이라는 제목으로 비혼이거나 이혼한 자녀들이 노부모의 부양을 책임지게 되는 세태를 다룬 것이었고 또 다른 것은 우리나라 70대 이상의 인구이동률이 10년 새 거의 반 토막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나이 든 부모가 배우자와 사별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자녀와 합가하지 않고 살던 곳에 머무는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이 됐으며, 이 내용과 노인 빈곤의 문제가 함께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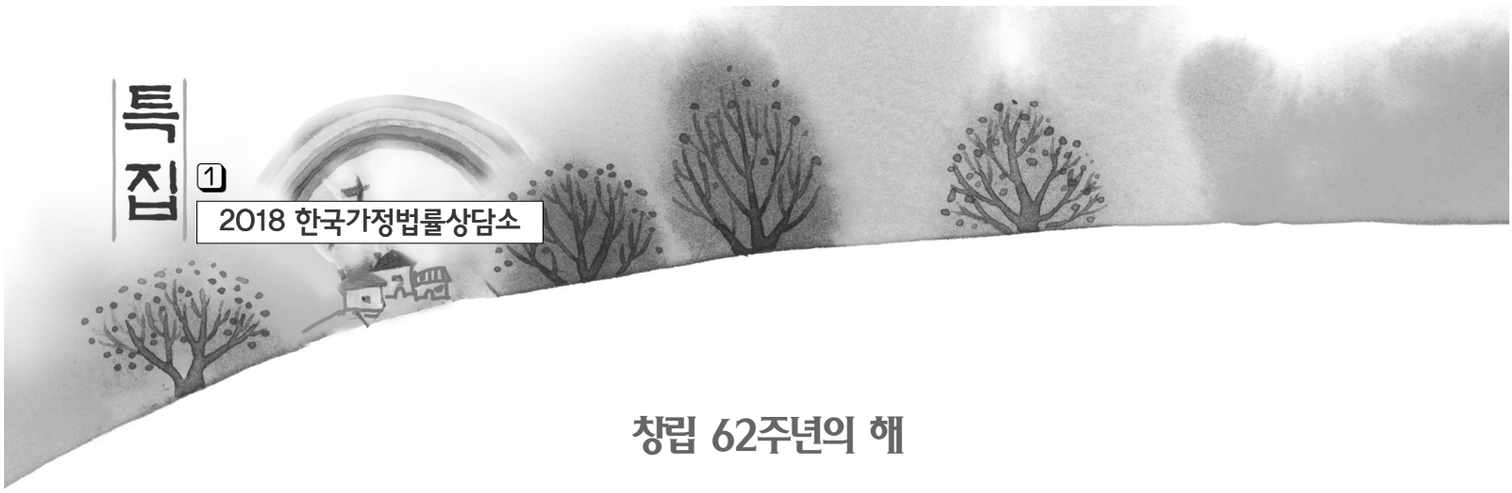
상담소를 찾아 가족구성원 간 갈등을 호소하는 내용 가운데 노부모 부양을 둘러싼 경제적, 정서적 갈등과 마찰의 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복지사회란 이러한 문제들이 가족 갈등이나 세대 간의 마찰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일 것입니다. 단적으로 젊은이들은 N포 세대라 자조할 만큼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지하철 탑승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불만이라는 이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온 노인 세대는 이제는 자녀들과 사회에 부담만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도 아닙니다. 복지의 사각지대가 너무 넓고 많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사회는 불가능할 지도 모릅니다만 최소한 국가 사회의 목표는 모든 세대,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사회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국가에 바라는 것은 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폭넓은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들에 관해 다시 중장기의 사회적 목표를 바르게 세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그것을 민주적 원칙 아래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은 포퓰리즘이나 임기응변이 아니라 진실하고 올바른 소통, 국민에 대한 설득과 국민들의 납득이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가족구성원의 인권과 복리가 평화롭게 보장되는 사회가 곧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6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특집 1
201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2주년의 해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가족에 더욱 집중하면서
법률구조사업의 내실과 안정적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 함께 노력할 것
지난 해 이어 법률상담에 관한 라디오 광고 계속

창립 62주년의 해를 맞이하는 상담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가정문제 전문상담기관이자 법률구조 사업의 창시자로써 변화하는 사회와 변화하는 가족의 문제에 더욱 집중하면서 법률구조사업의 안정적 활성화에 더욱 힘쓸 것이다. 증가추세의 서울가정법원 등의 출장상담과 미즈넷 등의 인터넷 상 법률상담 등을 통해 법률구조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더욱 활성화 하여 우리 사회 모든 가정과 가족구성원들이 평등한 가운데 법률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임상실습 및 출장법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법 교육을 확대하여 법의 생활화에 적극 나서고 사회의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문제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및 연구 · 출판 · 홍보 사업도 변함없이 충실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2017년 11월 정기 후기 이사회를 통해 확정된 2018년도 사업계획을 요약 · 정리 하였다.

법률구조 사업

1)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미즈넷, 야간상담 등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상담을 더욱 충실하게 하도록 내실화를 기하고 다문화 가정으로 대상으로 한 영어법률상담, 심리상담의 확대, 쉼터, 사회복지 기관 등의 순회상담을 비롯. 법원 위탁 협의이혼전상담, 개인회생 및 파산 · 면책 등에 관한 소송구조와 가정폭력피해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양육비 청구 등에 대한 소송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2)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및 교육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개별 · 부부 · 가족상담 및 음주상담, 집단상담, 교육강좌인 둥지교실 및 부부캠프와 피해자 자조모임인 라오니 모임 등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및 성행교정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하여 실시한다. 상세한 프로그램 안내를 다음 장에 안내하였다.

3) 법률계몽사업

법의 생활화와 가정 내 양성평등, 가정의 민주화를 위해 생활법률강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법률해설 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배포, 널리 홍보하며 신문, 잡지, 라디오, TV, 인터넷 매체 및 본소 홈페이지를 통한 법률계몽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 해에 이어 상담소의 법률상담에 관한 라디오 광고를 지속한다.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7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법 개정 및 제정 운동

가족법 개정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이에서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심포지엄,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가족법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또한 개정 가족법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지부설치 및 지원사업

법률구조 사업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지부를 신설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지부 실습생 지도, 지부 소장 간담회와 임직원 재교육 등을 통해 상담의 질적 제고 및 지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부 순회 점검 및 상담 및 통계 프로그램의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교육 및 예방 · 치료사업

가정문제의 예방과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현실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하게 운영하고, 법무부 지정 법문화진흥센터로써 법 교육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출장 법 교육, 전문가를 위한 전국순회 교육, 교원직무연수, 학생들을 위한 법 교육 등을 더욱 확대 실시. 또한 2개월에 한 번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한부모 가정 특히 비혼모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법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또한 법대생과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임상교육, 사회복지학과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임상실습, 사법연수원생 상담봉사, 대학생 봉사학점 이수 등도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

조사 · 연구 사업 및 심포지엄 개최

상담을 통해 드러난 가정의 문제를 근거로 조사 · 연구를 활성화하여 이를 가족법 개정이나 제정으로 이끌어서 가정의 민주화 나아가 가족구성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심도 깊은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자료실 운영

법률, 가정, 여성관련 전문 도서 및 기타 자료를 수집하여 전문 자료실로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교류 확대를 추진. 또한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서수종을 확대 하며 서고 및 각종 파일과 행정박물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출판 · 홍보 사업

2017 개정 가족법 홍보 리플릿 발행 등 가족법 개정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법의 생활화를 위한 출판 및 홍보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전산

상담 프로그램 및 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가족법개정운동본부의 홈페이지 유지 · 보수 작업, 상담소 홍보를 위한 웹 메일 편집 및 발송,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상담소 홍보를 연중 지속한다.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8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관계의 뇌와 사랑

김 병 후
본소 이사,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오랫동안 부부상담을 하다 보니 제일 중요한 것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사랑에 대해서는 보통 관념적, 철학적, 보이지 않는 실체로 이야기하지 과학적으로 풀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책들도 있지만 실제 사랑이 과학적으로 어떤 것인가 설명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이 내용들은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내기 위해 준비했던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사랑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합니다.

인간들에게 중요한 사랑

인간들에게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예전에 모든 영화와 노래는 왜 다 사랑타령일까. 왜 이렇게 인간들은 사랑을 좋아할까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인간들한테는 정말 사랑이 다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랑에 대해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하면서도 결혼생활을 하고,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자식에게 사랑의 말을 하고 거기에서 아픔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간에게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우리의 관심은 특히 여성분들은 더 사랑에 대한 관심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합니다. 남자들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들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사랑을 받거나 하는 것에 대한 관념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랑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래는 MRI로 사랑을 찍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의 뇌와, 다른 아기를 상상하는 엄마의 뇌는 활성화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자기 아기를 사랑하는 뇌의 부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더 나아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의 뇌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생각할 때의 뇌가 활성화 되는 부분이 달라지면서 기본적이긴 하지만 사랑과 관련된 뇌가 어디 부분이구나 하는 연구가 쌓여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랑을 얘기할 때 열정적인 사랑은 뭐냐 하면 관계를 맺지 않는 동

* 지난 1월 12일 본소 강당에서 열린 전국지부 신년 워크숍의 특강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한다.

물,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사랑이에요. 섹스 할 때겠죠. 지금 얘기하는 사랑은 꼭 성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엄마가 아기를 출산할 때, 아기를 기르는 과정에서 사랑이 출현해요. 성적인 쾌감이 아니라 누군가가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 사람이 제일 소중한 마음이에요. 이러한 사랑은 새끼가 있는 동물에게도 존재하거든요. 이러한 사랑을 안정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열정적인 사랑은 사실 관계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사랑이라고 보면 돼요. 열정적인 사랑은 짝짓기 철, 아니면 연애할 때, 처음 이성을 만났을 때의 사랑. 이땐 도파민 계열의 호르몬이 뇌에서 나온다는데, 도파민 계열이다 보니 쾌감을 느끼게 돼요. 이 사랑은 약간 히로뽕을 하는 것과 비슷한 사랑이에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 잠도 안 와요. 히로뽕이나 하피타민이라는 주사를 맞을 때처럼, 그 때와 비슷한 호르몬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 생각만 나고, 그 사람이 너무 좋고, 잠도 안 오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은 오래가지 않아요. 아주 오래가도 3년 정도(?) 대부분 몇 개월 만에 없어져요. 저도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없어지더 라구요. 그래서 이건 젊은이들의 사랑입니다. 부부들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아내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예전처럼 좋지 않으냐. 근데 그건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다시 오지 않아요. 다시 오게 하는 방법은 바람을 피우면 돼요. 사람을 바꾸면 돼요.

그런데 제가 강의할 때 하는 얘기인데 외도를 하는 건 비참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외도는, 부인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 외도하면 본인은 희생자로 피해자고 남편은 다른 여자랑 바람피우니 좋을 것 같지만, 그 남편은 아내하고 뭔가 잘 안되고, 안정적인 사랑을 맺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적으로 쾌감 좀 느끼면 뭐가 좋겠어요. 젊었을 땐 좋을지 몰라도 결혼하고 나이 들고 차라리 배우자와의 불안정한 관계가 안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사랑은 짝짓기 할 때, 초기의 사랑 형태예요.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안정적인 애착, 사랑의 호르몬입니다. 새끼를 기르기 위한 것이고, 조금 뒤에 다시 말하겠지만 이 애착의 호르몬이 떨어지면 일부일처제를 못해요. 이것을 위해선 뇌가 굉장히 진화되어야 해요. 그래서 바람피우는 사람들은 진화가 덜 된 사람이에요. 진화가 덜 돼서 안정적인 사랑을 못하니까 바람을 피우는 거거든요. 바람은 누구나 다 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부부가 오래 잘살 수 있고, 갈등이 있어도 이겨내면서 살 수 있는 건 뇌가 성숙해야 하고, 참을성과 인내심도 있어야 해요. 제가 제일 멋지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의 할아버지예요. 나이 들어서도 할머니를 얼마나 예뻐해요. 그렇게 오래 유지되는 관계를 위해서 이 애착의 호르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포유동물이 나타나면서 사랑이 출현

사랑이 언제 출현했을까. 포유동물이 나타나면서 사랑이 나타났다고 해요. 포유동물이란 어떤 동물일까요. 이전에 조류나 양서류, 어류와 같은 동물들은 짝짓기를 할 때 빼고는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사는 동물들이에요. 새끼도 기르지 않고 알을 낳아서 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부화하는. 이런 동물들은 알을 굉장히 많이 낳고 몇 마리가 살아남고, 그 몇 마리가 명맥을 유지하는 겁니다.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는 굉장한 뇌의 진화가 필요해요. 포유류라는 건 어미가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동물입니다.

원핵세포가 지구상에 등장합니다. 원핵세포가 모여 진핵세포가 되는데, 다세포 생물의 세포 구성원이 되는 것이 진핵세포입니다. 원핵세포 중에 에너지를 잘 만드는 세포가 있습니다. 원래는 자기들끼리 잡아먹는데 진화과정에서 열량을 잘 내는 세포를 먹고 나서 이걸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합쳐져서 진핵세포가 되는데 이게 미토콘드리아에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염색체가 달라요. 미토콘드리아는 모계로만 유전이 돼요. 우리 몸에 미토콘드리아 염색체와 일반 염색체는 달라요. 생물의 진화과정은 다 합쳐지는 거예요. 원핵세포 두 개가 합쳐져서 진핵세포가 되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10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는데 이게 7억년이 걸려요. 진핵세포가 지구상에 나타나서 다세포 생물, 식물과 동물이 만들어지는데 거의 한 20억년이 걸리고요. 세포와 세포가 만나서 진화과정을 겪는데 이게 만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관계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다세포 생물도 세포와 세포가 합쳐지는 거고, 다세포 생물이 어류라든지 파충류, 양서류는 혼자 사는 생물이고 이게 집단생활을 하는 생물로 또 진화가 됩니다. 세포와 세포가 만나서 만드는 게 다세포 생물이라면, 이제 세포가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따로 개체가 되면서 서로 연결이 되는 게 포유류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서로 떨어져 있는 동물을 합쳐지게 만들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5억 년 전쯤에 다세포 생물이 지구상에 나오고, 쭉 진화가 되어 2억 년 전쯤에 지구상에 공룡과 원시 포유류가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7천만 년 전에 공룡이 멸망을 해요. 공룡과 포유류가 약 1억 6천만년 정도 진화경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 공룡은 멸망하고 포유류는 살아남게 돼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보통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포유류의 가장 간단한 형태가 쥐, 설치류입니다. 공룡이 멸망할 때도 설치류에서 더 이상 진화를 못해요. 근데도 공룡은 멸망하고 쥐는 살아남아요. 아직도 잘 모르지만 이유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어떤 이유가 됐던 공룡은 워낙이 센, 진화적으로 굉장히 센 동물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강한 동물이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반면 포유류는 두발로 아장아장 걷게 된 것도 500만 년, 700만 년 전 정도밖에 안 됐어요. 2억 년 전에 포유류는 두 발로 걸을 수 없었어요. 공룡은 이미 두 발로 뛰어다닐 수 있었고, 키도 이십 몇 미터가 넘어서 도무지 그 동물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룡은 밝고 좋은 환경은 다 차지할 수 있었고, 반면 포유류, 쥐는 가장 음침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묘해서 안 좋은 곳에서 살수록 나중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룡은 밝고 좋은 환경에서 자기들끼리만 경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지구 환경이 나빠지면서 적응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태반의 존재입니다. 그 전에 공룡은 몸이 커지는 전략을 썼습니다. 포유류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했다시피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눈이 아니라 청각이 발달합니다. 그 당시 공룡이 있을 때에는 청각이 없었습니다. 밝은 곳에 있다 보니 눈으로 보고, 찾을 때는 냄새를 맡으면 돼서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청각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유동물은 청각이 있어야만 어둠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청각을 발달 시켰다는 것은 뇌를 크게 만들었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뇌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 전의 동물들은 턱뼈가 전부 세 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남고 포유류는 턱이 두 개가 없어졌어요. 이게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귀로 가서 청각이 됩니다.

다른 동물들은 모두 알을 낳으면 부화하는데 포유동물은 뱃속에서 아이를 키워서 키운 아이를 분만한 다음에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성장하여 살 때까지 어미가 지켜줍니다. 태반의 중요성인 것이지요. 이러한 포유류의 아이와 공룡처럼 알을 낳고 부화시키는 것과 새끼의 생존율은 비교가 안 됩니다. 포유동물은 안 좋은 조건에서 살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고, 어미가 새끼를 보호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진화경쟁에서 이겼다고 말합니다.

포유동물은 자궁이 있고 거기서 출산을 해요. 출산을 하고 자궁이 커져있는데 이 자궁이 빨리 수축하지 않으면 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병원에서는 자연분만하고 나면 옥시토신이라는 주사를 놓았습니다. 옥시토신은 자궁수축 호르몬이에요. 출산을 위해 필요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중에 보니 수유할 때도 필요하고, 이 호르몬이 있어야지만 새끼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는 겁니다. 분만과 관련된 호르몬이 분만의 행위만 하는게 아니라 분만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에게는 바죠프레신, 암컷에게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포유동물에게만 있고, 예를 들어 조류 같은 경우 포유류와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고 하등 동물일수록 멀어서 새끼를 낳는 정도에만 관여합니다. 포유류에 가까운 수준일수록 새끼를 기르게 되고, 조류는 포유동물과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새끼를 기르는 거죠. 그 전 단계 동물의 경우엔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11 CTP-8

자기밖에 없어요. 어류는 새끼를 낳을 때 보면 소중히 하는 것 같아보여도 나중에 자기 새끼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어미랑 분리시켜야 해요. 너라는 개념이 없어요. 나의 먹이가 되거나 나를 잡아먹거나. 다른 동물 같은 경우 세상에 태어나 눈뜨고 나면 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해요. 포유동물 같은 경우엔 세상에 태어나니까 따뜻한 품에서 누군가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먹이를 준다.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유동물에서부터 사랑이 출현하게 된 겁니다.

애착의 호르몬과 감정의 뇌

이 자료가 사랑을 가장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규명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시토신과 바죠프레신에 대한 연구인데, 책을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에도 몰랐어요. 저희는 옥시토신은 자궁수축제, 바죠프레신은 이뇨제로만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옥시토신, 바죠프레신을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의과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논문은 산쥐와 들쥐의 연구에서 나온 것인데, 초원에 사는 쥐는 일부일처제를 하고 새끼를 길렀어요. 그런데 산에 사는 쥐는 10일만 지나면 새끼를 버리고, 일부일처제를 하지 않아요. 이 두 종류를 보니 거의 비슷한 종인데 다른 형태로 산다고 해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찾아낸 것이 바죠프레신과 옥시토신입니다. 초원에 사는 쥐는 바죠프레신과 옥시토신의 수용체가 높아져서 이 기능이 잘 되는 거고, 산에 사는 쥐는 기능이 떨어져있는 거예요. 일부일처제를 하거나 새끼를 안정적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뇌에서 바죠프레신과 옥시토신이 일정부분의 작동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포유류, 영장류, 유인원, 인간으로 진화되어 갈수록 일부일처제의 비율이 높아져가요. 그 얘기는 진화가 잘 되어야 일부일처제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녀가 같이 지낸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새끼 낳을 때만 만났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보통 조류가 그렇게 하죠. 일반적인 동물들이 전부 그렇게 하는데, 일부일처제를 하고 새끼를 기른다는 건 뇌가 굉장히 발달되었다는 것이고 애착이 있어야 가능해요.

동물의 세계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건 여기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끼를 기르는 쥐는 자기 새끼가 아니면 다 잡아먹어요. 그런데 얘한테 옥시토신을 주입하니까 다른 새끼를 길러요. 애착이 만들어 지는 거예요. 새끼를 기르는 쥐의 옥시토신의 수치를 낮추니까 새끼를 안 돌봐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있어야 애착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돼서 이게 애착의 호르몬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비슷한 연구를 많이 해요. 남자들에게 옥시토신을 주입하면 이 남자들이 다른 사람의 눈을 쳐다봐요. 눈을 쳐다본다는 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피우는 남자들은 옥시토신 수치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옥시토신 수치가 높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 그대로 전달돼요. 아내가 아플 게 생각나서 바람을 잘 못 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운다는 것도 자식의 아픔이 그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옥시토신을 주입하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게 높아져요. 이렇듯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체계가 필요하고, 이 호르몬이 나오는 뇌의 영역을 변연계라고 해요.

변연계는 감정의 뇌라고도 하고 포유류의 뇌라고도 해요. 표유류에 와서는 이 감정의 뇌가 굉장히 커져요. 파충류 때까지는 감정의 뇌가 거의 없어요. 있어도 공포 같은 감정만 있지 사랑이라는 감정은 없어요. 감정의 뇌는 우리 뇌 중앙에 있어요. 이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내 새끼인지 아닌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영역도 있고 이런 영역들이 모여 감정의 뇌라고 하는데요. 포유동물서부터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감정의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연계를 잘라버린다면 사랑을 할 수 없죠.

그렇다면 감정의 뇌에서는 어떻게 해야 사랑의 호르몬이 나올까요. 사랑의 호르몬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사랑의 행위를 하면 사랑의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라는 건 옥시

토신이 분비되는 행위라는 건데요. 포유동물은 어떨 때 나오는가 하면 자기들끼리 외피와 외피가 접촉될 때 사랑을 느껴요. 보면 알겠지만 어미가 새끼 젖을 먹일 때 뭔가 안락한 감정을 느껴요. 또 엄마가 나가면 형제들끼리 몸을 대고 자요. 이게 따뜻함도 있지만 포유동물의 경우 자기편과 피부 마찰이 되면 옥시토신이 분비돼요.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이게 처음엔 같이 누워 자면서 냄새를 공유하고, 조금 더 지나면 놀이를 하면서 물고 뜯어요. 애들이 물고 뜯고 하면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거예요. 왜 분비되게 만들었냐면 포유동물이 서로 자주 접촉하게 해서 뭔가를 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이런 놀이를 많이 한 애들이 커서는 한 팀이 되어 사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실체라는 건 스킨십이에요. 스킨십은 그냥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자꾸 모여서 뭔가를 하라는 얘기에요. 포유동물이 같이 한 팀이 되어서 협동을 한다는 건 떨어져있는데 하나같이 되는 거예요. 합쳐지는 겁니다. 제가 사랑을 얘기할 때 합쳐진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합쳐진다는 건 외부하고 외부가 만나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간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건 재미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간의 좋은 점이 각자가 떨어져있으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 똑같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남자, 여자가 다르고 여기서 자식이 만들어지면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나타납니다. 다양하게 만들어질수록 좋은 거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자' 와 같은 말을 자꾸만 하는 이유가 이러한 다양성이 미래의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지구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지금 지구에 똑같은 인간들만 있으면 우리는 갑자기 닥친 위험에 전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이거 잘하는 사람, 저거 잘하는 사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가 죽더라도 다른 일부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물한테는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다른 여자와 남자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행위라는 건 달라야만 하는 두 사람이 만나 연결되게 하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거울신경세포

또 한 가지 거울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된 게 옥시토신이 애착의 호르몬이라고 밝혀진 때랑 비슷한 시기니까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대 초반에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거울신경세포라는 건 원숭이에게서 처음 발견돼요. 원숭이 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손을 움직일 때 보면 뇌의 전두엽에 손을 담당하는 영역이 활성화되어야 해요. 그런데 어떤 원숭이가 손을 움직이지 않는데 전두엽의 운동영역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해보니 다른 원숭이가 손을 움직이는 걸 보면 그걸 본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 손의 움직임을 자기 뇌에 그대로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원숭이들은 이렇게 하느냐. 원숭이만 하더라도 포유류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집단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다른 원숭이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돼요. 거울신경세포가 원숭이들에게 발달한 이유는 다른 원숭이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그 손의 움직임을 그대로 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울신경세포가 원숭이들에게 발달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게 인간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거울신경세포는 전두엽 쪽에 있어요. 뇌를 보면 운동신경 쓰는데, 감각신경 쓰이는 데가 다 뇌의 일정 부분에 정해져있어요. 사람은 뇌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얼굴과 손이 거의 대부분이구요 몸통은 거의 없어요. 우리 뇌의 대부분은 얼굴, 표정, 손을 관장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인간은 손을 관장하는 곳뿐만 아니라 뇌 전체에 거울신경세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하면 그것이 표정으로 나타나고, 그걸 본 상대방의 거울신경세포가 그대로 복제를 해요. 그리고 그걸 뇌에 가지고 가면 '아, 어떤 표정을 지으면 그건 어떤 마음이야.'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답이 여기 나와요. 그걸 또 상대방이 보면 '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생각을 하네.' 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거울신경세포를 통해서 변연계와 변연계가 공명을 이룬다고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13 CTP-8

해요. 아까 포유류는 스킨십을 하게 되면 변연계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 했는데, 인간들의 경우엔 거울신경세포를 통해서 표정만 보고도 변연계와 변연계, 뇌와 뇌가 통하게 돼요. 이럴 때 여기서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요. 이것도 사랑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누구랑 대화할 때 말이 통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왜 기분이 좋아지느냐. 바로 변연계가 공명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현상은 굉장히 많아요. 예컨대 여러분이 그림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건 그림을 그린 화가와 그림을 통해 변연계가 공명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명이 일어날 때 '아, 그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인간들은 나와 다른 사람이 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도 다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울신경세포는 소리를 들으면 들은 소리를 몸으로 체화시켜요. 라디오에서 비가 주르륵 내린다는 얘기를 들으면 나중에 비가 내릴 때 거울신경세포가 과거의 기억들을 모두 떠오르게 만들어요. 만약 미국에 있는 남편이 전화로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하면 아내에게 옥시토신이 올라와요. 진짜 사랑하는 것 같이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거울신경세포는 인간과 인간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장소와 관계없이 인간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게 통신입니다. 인간들은 거울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에 장소에 관계없이 다른 인간과 연결되는 게 가능해요. 문서라는 건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예컨대 우리가 옛날 시인의 시를 읽으면 그 시를 통해 뇌가 공명을 일으켜서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현재 우리 인간의 뇌는 다른 사람의 뇌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연결이 안 되는 인간들은 견디질 못해요. 즉 거울신경세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게끔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문명을 만들고, 결속하게 만든 첫 단추는 새끼를 낳아서 기르기 위한 애착의 호르몬이고 그게 이어져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애착의 호르몬에 대한 사랑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곳이 남녀관계와 가족관계예요. 사랑은 결속을 시켜요. 그런데 왜 자꾸만 싸우느냐. 이건 사랑이라는 게 워낙 좋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사랑 하면 그 상대방이 나한테 해줘야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저와 우리 아내가 서로 사랑하기로 했다면 그 후부터는 전 길가다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 혼나요. 이제는 사랑의 의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지나친 부분인데, 옥시토신은 사랑을 연합시키지만 바죠프레신 등의 애착호르몬 같은 경우에, 이 호르몬이 많은 수컷은 자기 새끼와 암컷을 보호해요. 남성들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자와 아이를 보호하는 겁니다. 곤충의 세계에서 수컷이 얼마나 비참하냐 하면 사마귀는 교미한 후에 자기 몸을 암컷에게 줘요. 동물의 5%가 교미를 한 후에 암컷에게 자기 몸을 줘요. 자손을 번식시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여성들의 경우 남편이 자기를 아프게 하면 못 견뎌요. 남편이 자기를 보호해야 해요. 여성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기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 남성분들은 아내를 좋아해요. 아내들은 남편이 나에게 잘해야만 좋아해요. 훨씬 이기적이야. 인간들에겐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어쨌든 내가 새끼를 안전하게 기르기 위해 잘해주는 의미일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성들은 아내를 많이 보호해줘야 하는데 아내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면 아내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서 부부관계를 보면 또 다르게 보이는 게 많아요. 왜 사람들이 사랑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사랑을 못 받으면 슬퍼하는지. 사랑은 다시 말하지만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이 사랑이 인간이 문명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인간이 다른 인간과 연결되는 모든 부분의 기초는 가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정, 결혼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라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형태가 깨진다면 인간의 인간성이 깨지고 그 뒤에 어떤 형태가 올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의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인간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 아닐까 생각하구요. 좀 더 얘기하면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나 이외의 타자들,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나에게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존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겁니다.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14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가정상담〉 발행을 시작하다

1971년 **이태영 소장, 제1회 '법을 통한 세계평화상' 수상**

〈가정상담〉 창간호 발행

상담소는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1971년 기관지 〈가정상담〉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이태영 소장은 '세계 평화의 문턱에서' 라는 제목의 창간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략) 지난 7월 22일 「유고슬라비아」에서 『法을 통한 세계평화상』을 받는 자리에서 受賞對象이 「자연인 李 兌 榮」이 아니라 「韓國家庭法律相談所」임을 알았을 때, 나는 지난 15년간 상담소를 도와주신 많은 親知에게 이 기쁨을 어떻게 전달할까 걱정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相談所는 이 나라 모든 女性들의 相談所였건만, 그동안 살림에 쪼들려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엄두조차 갖지 못했읍니다.

오늘 창간한 「가정상담」은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한 편, 일손에 바빠 相談所를 찾지 못하시는 여러분을 찾아가는 相談役이 될 것입니다.

15년 만에 겨우 이렇듯 초라한 相談紙를 내놓았읍니다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과 같이 이젠 빠른 속도로 성장하리라 믿어집니다.

머지않아 매일 매일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相談紙가 되도록 힘써 노력할 생각입니다.

15년 전 단칸방에 차린 相談所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오늘 알찬 살림을 차린 것처럼, 이 傳單같은 「가정상담」이 또다시 여러분의 성원으로 세계적인 家庭法律紙가 될 부분 소망으로 創刊號를 보내 드립니다.

이제 國內外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게 된 우리는 보다 정성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렴을 다하려 합니다.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15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가정상담
世界 平和의 문턱에서
人生相談의 길잡이
萬人의 多情한 벗되길

여러분의 충고와 협력이 「가정상담」을 통해 倍加되고, 여러분의 걱정들이 「가정상담」을 통해 해결되길 바랍니다."

가정상담 창간호는 타블로이드판 신문 형식으로 발행되었으며 모두 4면으로 1면에는 이태영 소장의 창간사와 기세훈 당시 서울고등법원장 겸 사법연수원장, 이숙종 한국여성단체협의 회장의 축사 그리고 주요한 소식을 실었다. 2면에는 김주수 교수가 본소 상담위원의 직함으로 쓴 논단 '부부의 재산적 독립의 이상과 일상가사 대리권' 그리고 통계와 가정상담 사건에 대한 소개를 실었으며 3면에는 국내 법률구조활동 내용 및 상담소의 지나온 역사에 대한 회고를 실었다. 4면에는 상담소의 연혁과 상담소 이사진, 역대 상담간사의 명단 및 상담소의 하루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통권 414호를 발행하고 있는 〈가정상담〉은 법률구조를 중심으로 상담소 각 부문의 사업내용을 전하는 소식지이자 상담을 통해 나타난 우리 사회의 가정문제, 법과 제도의 문제, 국내외 법률구조 사업의 현황, 가족법 개정운동을 전파하는 상담소의 기관지로 충실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가정 상담 사건 소개

1971년 10월 5일 상담소 창립 15년 만에 연간 형태로 창간호 발행

1978년 8호까지 발간

1979년 연 2회 발간

1980년 연 3회 발간

1981년 문공부에 정기 간행물 등록, 격월간으로 발간,
타블로이드판 4면
원곡 김기승 선생의 친필 제호 사용
편집위원회 구성 – 한국일보 장명수 기자, 동아일보 지영선 기자, 중앙일보 김징자 기자, 서울신문 조남진 기자 등 상담소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일간지 여기자들이 주축이 되어 〈가정상담〉 제작 자원 봉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1991년까지 모두 12명의 각 언론사 여기자들이 〈가정상담〉 제작에 도움을 주었다.

1984년 아시아재단의 후원으로 월 5천부씩 발행

1986년 월간으로 발행, 월간 정기간행물로 등록, 판형과 체제를 정비하여 국배판 16면으로 발행하는 한편 소식지에서 교육계몽지로서

가 정 상 담

창설당시의 회고

걸어온 길 돌이켜 보아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보람찬 10년

家 庭 相 談

가정법률상담소 그 연혁

그 연혁

본소 간부진 명단

畵報 / 상담소의 하루

의 성격을 강화했다. 월 1만부 발행으로 확장하여 보다 많은 여성과 유관단체에 소식과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1999년 1월 가정문제 전문 법률구조 법인 상담소의 기관지로서 성격을 살리면서 2도 인쇄를 시작하였다. 늘어난 수요에 부응하여 9월부터 월 12,000부를 발행하였다.

2000년 4월 통권 200호를 맞아 지면을 혁신하며 20면으로 증면하였다.

2006년 1월 상담소 사업의 확장과 활성화에 맞추어 24면으로 증면하였다.

2008년 8월 상담소 창립 52주년의 해, 발간 37년을 맞아 통권 300호를 발행하였다.
경우에 따라 32면도 병행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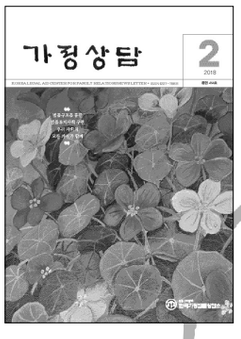
2009년 1월 2008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회관 신축을 기념하여 정희성 시인이 자필로 써서 기증한 축시 '겨자꽃 핀 봄날에–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새로운 반세기를 위하여' 에서 발췌하여 새로이 제호로 사용하면서, 표지 4면 4도 인쇄, 본문 28면 흑백인쇄로 본격 32면 발행을 시작하였다.

2011년 3월 36면으로 증면발행을 시작하였다.

2014년 5월 화가인 이현혜 평생회원의 작품을 표지에 담기 시작하였다.

2016년 1월 원로 가족법학자인 박병호 서울대명예교수의 친필제호를 사용하기 시작 했으며, 통권 400호로 12월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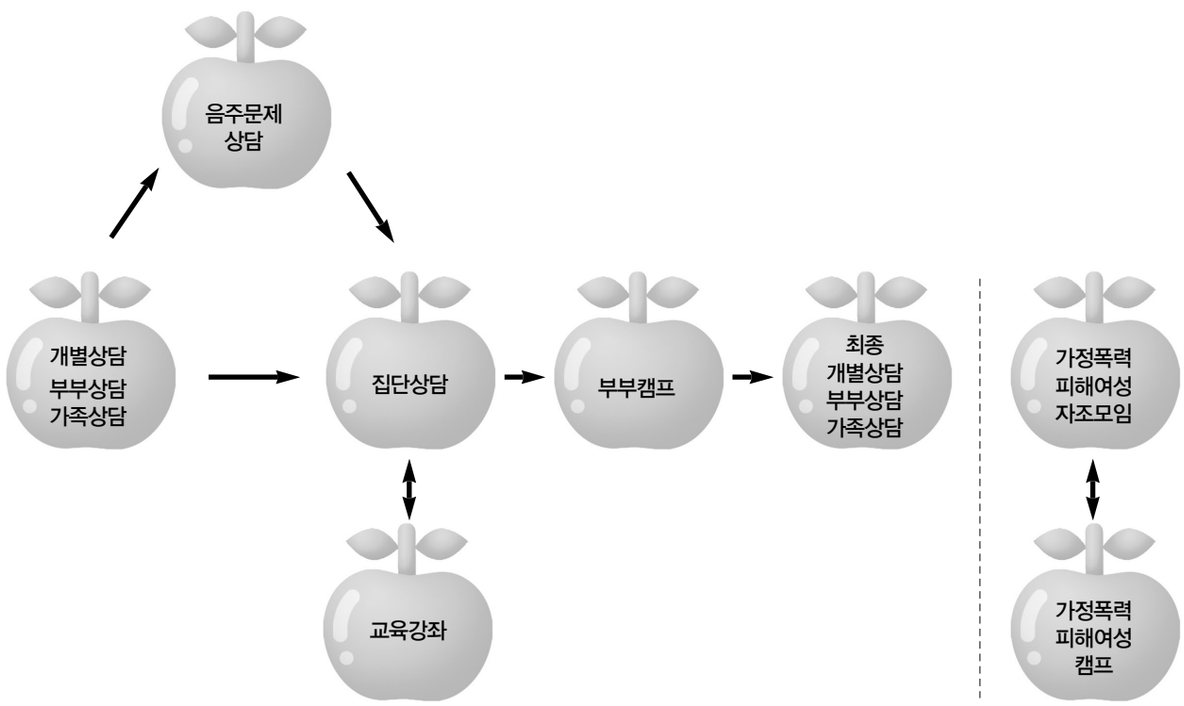
2017년 2월 현재 통권 414호를 발행하였다.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17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가정폭력피해자 · 행위자의 욕구와 동기에 맞춘 단계적 프로그램

본소는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폭력피해자와 행위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자의 욕구와 동기에 맞추어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다.
2018년에 진행될 본소의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18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I.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폭력에 대한 책임 및 인식 개선, 가정폭력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한 심리적 접근과 더불어 가족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부부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폭력재발방지 및 갈등해결 방안 모색

▶ 일 시 : 연중
▶ 대 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행위자
▶ 진 행 : 본소 상담위원

II. 음주문제 집단상담

가정폭력 행위자의 음주문제를 진단하고 절주나 단주 등 대처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음주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 일 시 : 연 4회(각 4회기)

날짜	1회 : 2/2, 2/23, 3/2, 3/16 (4회기) 2회 : 4/6, 4/20, 5/4, 5/18 (4회기) 3회 : 6/1, 6/15, 6/29, 7/13 (4회기) 4회 : 9/14, 9/21, 10/5, 10/19 (4회기)
각 회기별 주제	1회기 : 알코올중독 선별 검사, 알코올의 이해(역사, 특징 등) 2회기 : 알코올과 나(공격성, 분노, 치매 등) 3회기 : 알코올과 가족(공동의존, 성인아이 등) 4회기 : 알코올과 회복(재활의 실제, 관련 정보 등)
시간	음주문제 피해자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음주문제 행위자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

▶ 대 상 : 음주문제가 폭력 및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
▶ 진 행 : 김혜선 교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혜선 교수

III. 집단상담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인식, 집단성원들과의 토론 및 상호 피드백을 통해 가정폭력의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해결방안 모색 · 공유

집단상담 ①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 대 상 : 가정폭력 행위자
▶ 진 행 : 이서원 소장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이서원 소장

집단상담 ②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 대 상 : 가정폭력 행위자 및 배우자 (부부)
▶ 진 행 : 정윤경 교수 (한국단기가족치료연구소)

정윤경 교수

집단상담 ③

▶ 일 시 : 필요시
▶ 대 상 : 가정폭력의 문제가 있는 부모 · 자녀 등 부부 외 가족구성원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19 CTP-8

IV. 둥지교실 : 교육강좌

▶ 일 시 : 연 10회,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진 행 : 최영주
(HD행복연구소 수석강사)
우애령
(사회복지학 박사, 작가)
이서원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
정윤경
(한국단기가족치료연구소 교수)

우애령 박사

최영주 강사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 정	강의제목	강사
2월 8일	희망 : '이제 끝이다' 라는 순간에 피어나는 보석같은 감정	최영주
3월 8일	두려움 : 두려움! 넌 누구니?	
4월 12일	수치심 : 나의 수치심은 어디에서 왔을까?	
5월 10일	감사 : 우리 삶에 가장 강력하게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선물같은 감정	
6월 14일	우울 : 우울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우애령
7월 12일	평온 : 내 힘으로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기	
9월 13일	분노 : 뜻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	이서원
10월 11일	평안 : 고통 속에서도 안정된 마음을 만드는 법을 배운다	
11월 8일	열등감 : 성장과 변화로 가는 에너지	정윤경
12월 13일	자존감 : '나는 나다'	

V. '나, 너, 그리고 우리' 행복찾기 부부캠프

부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부부화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 일 시 : 연 2회, 2018년 3월 24일 ~ 3월 25일 / 10월 27일 ~ 10월 28일

▶ 대 상 :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누구나 참석가능 (선착순 20쌍 모집)

▶ 신청방법 : 사전신청 필수

▶ 자녀들을 위한 별도의 미술치료 프로그램 운영

VI. 라오니 모임(가정폭력 피해여성 자조모임)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서로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며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도록 도움을 주는 자조모임

▶ 일 시 : 월 2회, 매월 첫째 · 셋째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1시 30분

▶ 대 상 : 가정폭력 피해여성

▶ 진 행 : 장희숙 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희숙 교수

VII. 라오니 캠프(가정폭력 피해여성 캠프)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심리적 지원 강화를 위한 1일 캠프

▶ 일 시 : 12월 8일 (토) 오전 10시 ~ 오후 7시

▶ 대 상 : 가정폭력 피해여성

▶ 신청방법 : 사전신청 필수

VIII.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상담을 통한 변화 등 확인, 향후 계획 수립 및 점검

▶ 일 시 : 연중

▶ 대 상 : 가정폭력피해자 및 행위자

▶ 진 행 : 본소 상담위원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20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인·터·넷·상·담

Q

저는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연락을 끊어 버렸습니다. 저는 최근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출생신고 하면서 남자친구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고 남자친구를 아이의 아버지로 올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참조).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아버지의 성과 본을 알고 있으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인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버지의 성명이 그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아버지 란에 기재되지는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참조).

이후 남자친구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인지 판결을 받은 후,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참조). 인지신고는 아이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인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참조).

김민선 변호사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21 CTP-8

세 여자 1, 2 20세기의 봄

조선희 장편소설, 2017, 한겨레출판

책 표지에 한 장의 낡은 사진이 있다. 봄인지, 여름인지, 세 여자가 개울에 발 담그고 있는 사진이다. 하얀 통치마, 팽팽한 종아리와 통통한 뺨, 가뿐한 단발이다. 일제강점기 한때 경성을 풍미했던 월간지 〈신여성〉에 이 세 여자 중의 한 사람 허정숙이 쓴 글에 의하면 그들이 단발하던 때는 1925년 8월 21일 – 날짜를 못 박을 만큼 여성의 단발이 화제였던 시대였다.

작가는 러시아의 카레이스키 무용가 비비안나가 방한하며 보여준 이 사진에서 천진한 세 처녀를 발견하고 그들의 생애를 추적해서 사진의 주인공 주세죽, 허정숙, 고명자를 찾아냈다. 책을 읽다보면 '20세기의 봄'이란 부제가 어떨 땐 그럴듯하고 대체로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암울한 식민지 백성 그 중에서도 여성으로서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독립과 혁명을 꿈꾸던 20세기의 여성 선구자들의 열정적 삶이 신기할 정도였고,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침몰해가는 모습은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임에도 안타까웠다. 사진 속의 여성들은 젊고 아름답고 평화롭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당대 유행의 '주의자'로서 허정숙은 임원근, 주세죽은 박헌영, 고명자는 김단야 등 역시 당대의 유명한 공산당원과 결혼하여 독립과 혁명 운동에 동참했다.

소설은 상해에서 시작하여 그들의 삶을 따라 한반도와 중국의 상해, 연안, 일본 동경과 미국, 모스크바와 알마아타까지 이어지고, 그들은 자발적 선택 혹은 추방이나 탈출로 식민지 백성다운 여정을 보여준다. 그들은 남편들과도 주체적 이혼, 도피과정에서 헤어지거나 기약할 수 없는 이산으로 흩어졌고 남편 친구와 재혼하며 동지적 관계를 유지한다.

모스크바공산대학에서 공부한 고명자는 일제 말기에 귀국해서 친일 잡지의 기자로 부역을 하고, 김단야와 재혼한 주세죽은 간첩 누명을 쓰고 딸 비비안나를 모스크바 유아원에 남겨둔 채 카자흐스탄으로 유배되며, 허정숙은 모스크바와 뉴욕에 유학을 다녀오고 무한에서 중국공산당에 합류, 모택동의 대장정에 동행하여 태항산에서 종전을 맞는다. 그들의 말로를 보면 강경 거부의 딸 고명자는 서울에서 6 · 25를 맞아 사역에 동원되며 굶주림과 병으로 고독하게 생을 마친다. 주세죽은 무용수가 된 딸을 보러 모스크바에 와서 숨을 거두었고, 5개 국어를 하는 당대 최고의 인텔리 허정숙은 첫 남편 임원근 이후 송봉우, 최창익 등 여러 남편을 거치면서 연안에서 팔로군으로 활동했고 해방 후 귀국하여 남로당과 연안파를 숙청한 김일성 치하에서도 문화선전상과 최고재판소장 등의 권세를 누리다 아흔 살에 사망하여 평양 애국열사릉에 묻혔다.

주세죽이 남편 박헌영이 죽은 줄 알고 김단야와 재혼했다고 고백하자 박헌영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개인의 이성과 판단을 넘어서 있소. 용서한다면 시대를 용서해야겠지."

작가 조선희는 1960년 강릉에서 태어나 1982년 연합통신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한겨레신문 창간에 참여해 문화부 기자로 일했고 [씨네21] 창간부터 5년 동안 편집장을 했다. 에세이『정글에선 가끔 하이에나가 된다』, 장편소설『열정과 불안』, 단편집『햇빛 찬란한 나날』을 냈다. 『세 여자』는 2005년에 시작했으나 두 번의 공직 생활로 중단됐고 12년 만에 완성됐다

이 숙 현 편집부장

결혼과 인생(180)

영화이야기

굿' 바이

감독 다키타 요지로

출연 모토키 마사히로, 히로스에 료코, 야마자키 쓰토무

첼리스트 다이고(모토키 마사히로)는 소속된 오케스트라의 갑작스런 해체로 백수가 된다. 천팔백만 엔 짜리 비싼 첼로를 사느라 대출받은 돈을 어떻게 갚을 지부터,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내 미카(히로스에 료코)에게 면목 없게 된 상황까지 다이고는 괴롭기만 하다. 결국 아내와 함께 고향 야마가타로 돌아온 다이고는, 파격적인 조건의 여행 가이드 구인광고를 발견하여 면접을 보러 간다. 사장 이쿠에이(야마자키 쓰토무)는 이력서도 들여다보지 않고 바로 합격 판정을 내리고, 얼떨떨해진 다이고는 이곳이 여행사가 아니라 납관 일을 하는 곳임을 뒤늦게 알게 된다. 아내에게마저 이 상황을 숨기고 조금씩 일을 배워나가던 다이고는 납관 작업에 점점 자부심과 애착을 느끼기 시작한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죽음은 피하기 힘든 경험이다. 나의 죽음이 아직 닥쳐오지 않더라도 가까운 친구, 가족, 친척, 혹은 직장 동료, 반려동물의 죽음은 어느 때고 찾아든다. 심지어 그것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갑작스런 상황이라면, 남겨진 이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진다. 감정의 격동을 차분하게 다스리거나 가라앉힐 여유는 주어지지 않고, 장례식장을 어디로 할 것인지, 상조회사와는 무엇을 어떻게 의논해야 하는지, 빈소에 찾아들 조문객들의 규모를 어디까지 상정해야 할지, 장례 방식은 어떻게 할지 등을 아주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결정해야 한다. 애도의 시간보다 '조직화'의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가까운 이의 죽음은 삶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불필요하게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돌출된 사건에 가까워진다. 이 같은 경험은 망자에게도, 남겨진 이들에게도 그리 편치 않다.

〈굿' 바이〉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는 판타지에 가까운 죽음의 경험을 그린다. 망자가 평소에 좋아하던 립스틱, 망자가 신고 싶어 했던 고운 양말, 망자가 즐겨 착용하던 스카프가 마지막 치장에 동원된다. 납관사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바로 앞에서 망자의 옷을 마지막 예복으로 갈아입히고 꼼꼼하게 메이크업을 마친 다음, 가족들에게 망자의 얼굴을 살균 티슈로 한 번씩 닦을 기회를 준다.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마치라는 것이다. 사랑과 슬픔과 회한, 혹은 서로에 대한 원망이 오간 다음 터져 나오는 눈물과 함께 가

족들은 망자를 놓아준다. 납관사의 정중한 손길 덕에 아름답게 단장한 망자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문턱을 나선다. 하지만 가장 깔끔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 세상'을 향해 떠나는 망자는, 어떤 의미에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행객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납관사 이쿠에이는 '여행을 도와 드린다'라는 문구를 구인 광고에 집어넣었다. 납관사는 여행 가이드와 다르지 않다는 그 믿음은, 장의사라든가 납관사처럼 시신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직종에 대한 일반인들의 비하와 혐오 앞에서도 꿋꿋이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어떤 출생이나 결혼처럼, 어떤 죽음 역시 고독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종류의 사건일 수 있다. 이를테면 〈굿' 바이〉 초반에 등장하는, 사망한 지 2주 만에 발견된 고독사한 할머니의 썩어가는 시신처럼. 그런 죽음 앞에서마저 납관사 이쿠에이는 예를 갖추고 최선을 다하여 망자를 떠나보낸다. 처음에는 납관 일에 질겁하던, 그리고 아내와 친구들이 혐오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더러워!"라고 소리 지르며 표출하는 혐오감에 충격 받던 다이고는 서서히 죽음 앞에서야 말로 인간의 가장 더럽고 비정한, 또 반대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면을 공평하게 볼 수 있다는 진실을 깨닫고, 그 자신의 깊은 상처마저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낸다. 〈굿' 바이〉는 그렇게 내가 보내주고 싶은 죽음의 형태, 혹은 내가 보내지고 싶은 죽음의 형태를 구현하면서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함께 전한다.

사족을 덧붙이자면 〈굿' 바이〉는 딱 10년 전 영화다. 지금의 관객들의 시선에서는 특히 주인공 다이고와 아내 미카의 관계를 그리는 부분에서 편치 않을 수도 있다. 다이고는 첼리스트 시절에도 미카에게 첼로의 어마어마한 가격을 숨겼으며, 납관사라는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도 아내가 뒤늦게 알아내고 추궁할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왜 그랬냐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똑같다. "당신이 못 사게/못 하게 할까봐." 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미카 쪽이다. 영화에서는 그 과정이 착한 아내의 당연한 의무처럼 다정하게만 그리는데, 사실상 결혼 생활을 위기로 몰아넣는 건 불리한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한 남편 다이고 쪽이라는 사실에는 별 관심 없는 듯하다.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24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 상담소에서 지난 1월 2일부터 4주간 임상실습을 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생들의 소감을 싣는다.

최 유 정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018년 새해와 함께 시작한 실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우리는 법의 테두리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법은 그와 동시에 어렵고 생소하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거리감을 느끼는 분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과 고통을 받는 이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며 법은 사회복지의 도입이 시급한 분야라고 생각하였고, 법과 사회복지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습기관으로서 관심이 갔습니다.

실습을 하는 동안 법과 사회복지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구조법인으로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상담, 소송구조, 무료대서 등의 법률 서비스를 내담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실습기간 동안 여러 건의 법률상담을 참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내담자들이 주로 어떤 가정문제를 겪는지, 이와 관련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상담자들은 어떤 답변을 하는지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틈틈이 공부했던 가족법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었던 점도 유의미했습니다. 모든 법률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볼 수는 없었지만 접수실 실습, 기관 통계자료 정리, 도서실 업무 등 간접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 법률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소 내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실습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관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관한 프로그램 중 목요일마다 참관한 집단상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녁까지 근무하느라 신체적으로는 피곤했지만 일상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는 목요일은 일주일 중 제일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조모임인 라오니 모임, 자녀폭력 부모 집단상담, 부부 집단상담에서 부부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 자녀폭력 행위자 등 가정폭력에 대한 다양한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실습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실습 수퍼바이저를 비롯한 많은 상담위원 선생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하나라도 더 경험시켜주고 가르쳐주려고 하셨던 상담소 내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25 CTP-8

윤 혜 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사회복지 부전공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4주간 실습을 통해 공부했던 이 시간은 저에게 매우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실습을 시작하기 전 저는 상담소의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습에 임했습니다. 이에 상담소의 세 가지 역할, 즉 법률구조의 역할, 가정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제공의 역할, 그리고 가족법개정의 역할에 대해서 모두 경험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가족법을 활용하는 법률상담참관을 통해 수험법학으로 공부하였던 친족상속법이 실제로 내담자의 상담에 있어서는 어떻게 응용되어 적용되는지를 직접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즉 법조항에 머물렀던 경험적 지식이 어떻게 실제 내담자의 삶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으로 변환되어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교원직무연수강의를 통해서는 이혼절차, 성년후견신청절차 등 법의 실제적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적, 실무적 지식에 대한 정보까지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사회복지학을 부전공하면서 공부하였던 상담의 실천론적 기법들을 다수의 집단상담 참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는 진행자가 수용의 태도, 공감의 태도, 직면의 기법 등 다양한 상담기술을 이용하여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볼 수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학을 현재 공부하고 있는 본인에게 이론적 학문을 실천현장에서 직접 응용해보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되었고, 앞으로 사회복지학 부전공을 마무리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셋째로, 정치학, 특히 그 중에서도 입법학을 공부했던 본인은, 도서관 업무를 진행하고 각종 심포지엄 자료를 공부하면서 가족법개정운동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족법상의 평등이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인상 깊었고, 변화나 개혁을 이끌어내는 것은, 현재 고착되어진 수많은 이해관계를 설득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할 정확한 방향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일임을 느꼈습니다.

이태영 박사께서는 호주제를 폐지할 때, 호주제폐지를 반대하는 측의 위협, 모욕,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호주제 폐지를 통해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튼튼해진다는 비전과 구체적 계획까지 제시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법의 개정은 사회를 바꾸는 동력이 되는 만큼 어렵고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어쩌면 많은 공격을 받기에 투쟁적인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소장님은 교원직무연수강의에서 2017년 현재 제14차의 가족법이 약 80%의 남녀평등과 부부평등을 이루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부장 제도인 호주제를 뿌리 뽑긴 했지만, 아직도 그 뿌리에서 나온 줄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평등이라는 이상향을 향해 14번의 개정이 차곡차곡 이루어진 과거의 역사를 보니, 나머지 20%의 개정을 통해 완전한 평등을 이루는 가족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의 개정이라는 작업을 진로로 삼고 싶은 본인에게 본 실습은 더 뜻깊게 다가왔고, 앞으로의 학업에서도 지속적으로 가족법에 관심을 가지고 가족법이 나아가야 할 거시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같이 실습했던 실습생들과 좋은 인연을 쌓아서 참 감사하고, 많이 미숙했지만 친절하게 업무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도움을 주신 여러 상담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26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상.담.소 . 소.식

2018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지부 신년 워크숍

지난 1월 12일 본소 강당에서 2018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지부 신년 워크숍이 있었다. 전국지부 임직원들과 본부 곽배희 소장 및 상담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된 이 날 모임은 1부 특강과 만찬, 2부 신년회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곽배희 소장의 신년사에 이어 "관계의 뇌와 사랑"을 제목으로 김병후 박사(김병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의 강의가 있었고, 2부 신년회에서는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의 사회로 지부운영 및 소송구조 사업 안내(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복미영 상담위원), 가정폭력관련 사업 안내(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청탁금지법 등 부패방지교육, 통계프로그램, 성희롱예방교육(김진영 상담위원)등을 주제로 한 설명과 질의 · 응답 등으로 진행되었다.

당일 지부 참석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지부소장 · 이사장 외 직함 및 존칭생략, 지부 가나다순임).

강릉지부 오경식 소장, 전원희, 탁영주 / 구리?남양주지부 전병화, 백현주 / 군산지부 조미영 소장, 신옥자 / 대구지부 유연희 소장, 이선주 / 대전지부 조성남 / 동해지부 김혜동 소장, 서지희, 고미희, 김명희, 김서정 / 목포지부 조혜리 / 부천지부 박미애, 황영숙 / 성남지부 이정숙 소장, 유향순, 정진경, 박선화, 이춘화 / 송도지부 이영미소장, 김영순, 정선경, 이영옥, 김영미, 배은주, 이유주 / 수원지부 조선주, 곽지은 / 안동지부 서점애 소장, 권오자 / 울산지부 윤영해 / 익산지부 김성란 / 인천지부 한현애, 박지훈, 김성숙, 진인숙 / 전주지부 유순금 소장 / 정읍지부 송경숙 소장, 송미경 / 중구지부 제오복 소장, 양영재 / 창원?마산 서정희 소장 / 청주지부 홍종호 소장, 정복자, 이자영 / 춘천지부 이명숙, 최문경 / 평택 · 안성지부 김동숙 / 포항지부 박해자 소장, 김경이 (관련사진 2면)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27 CTP-8

송도지부 개소

인천 송도신도시의 인구가 10만이 넘어가면서 그 지역을 위한 법률구조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송도지부가 1월 4일 개소식을 가졌다(지부이사장 정영근, 지부소장 이영미).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G타워 민원동 3층 강당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은 경과보고, 곽배희 소장의 기념사, 지부인증식, 외부인사들의 축사와 이사장 및 소장의 취임사 등으로 진행되었고 송도지부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커팅식 및 다과회가 이어졌다. 송도지부의 개소로 본상담소의 지부는 28개가 되었다. 이날 개소식에 본부에서는 곽배희 소장과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복미영 상담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본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법률구조 활성화와 법률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2018년 1월 26일 본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본소와 공단은 이 협약을 통해 법률보호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구조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법률복지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본소에서는 곽배희 소장과 조경애 법률구조 제1부장, 조은경 상담위원이 참석하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이헌 이사장, 김정선 서울중앙지부장, 강병훈 구조정책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잘 몰라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등 소외 계층을 위한 법률 구조의 확대와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와 함께 양 기관의 동반성장이 기대된다.

본소 교육부, 전국 교사 대상 교원직무연수

본소 교육부에서는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초 · 중 · 고 교원을 대상으로 15시간의 「법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직무연수에서는 총 13차에 걸친 가족법 개정사와 법률구조, 혼인, 이혼, 친자 · 양자, 부양, 성년후견, 상속 등의 가족법과 새롭게 변경된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별법 및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폭력예방교육, 채권채무, 임대차관련 법률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고, 수강생들은 강의를 들은 후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고 배운 내용을 간단히 실습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수강생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원 연수를 이수하였다. 가족법과 가족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고, 어려운 가족법을 쉬운 강의와 상담현장에서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으며 학교에 돌아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의 수강생들의 소감 발표가 있었다. (관련사진 2면)

본소 교육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 교육부에서는 매달 넷째 목요일, 3시~5시 정신과전문의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을 초청하여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무료로 진행하며, 지난 1월 25일 "상담의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28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들" 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첫 공개강좌가 진행되었다. 강사는 상담을 하면서 만났던 부정적 결과와 긍정적 결과에 대하여 개인적 영역, 부부사이의 관계영역, 원가족과의 관계영역으로 나누어 갈등과 상처를 다루는 방식에서의 문제를 설명하였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갈등을 회피하는 경우나 상처받은 피해자가 변화하려는 가해자를 좌절시키는 경우를 예로 들며 어떤 상처이며 어느 정도의 아픔인가는 객관적으로 타인에 의해 검증될 수 있는 양으로도 정해지지만 주관적으로 아픔을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상처의 정도가 결정되며 상처를 이겨낼 힘도 개인의 정신적 성숙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상처를 객관적 지표로 환산하려 하지 말고 절망적 한계점에 이르기 전에 상담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였다.

이번 강의에는 총 70여명이 참석하였고 수강생들은 부부갈등과 상처를 다루는 상담의 실제 사례를 들며 설명하여 이해가 쉽고 공감이 되었다며 올해 진행될 강의가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 강의는 오는 2월22일(목) "마음의 상처" 라는 주제로 진행 될 예정이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임상실습

2018년 1월 2일부터 1월 26일까지 4주간 사회복지 임상실습이 본소에서 진행되었다. 본소의 사회복지 임상실습은 법학과 사회복지학의 접목을 통하여 가정문제에 대한 법률적 시각을 정립하고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 실천기술과의 접목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론으로는 개별상담 및 가정문제 예방 프로그램의 참관과 개입을 통하여 본소의 법률구조사업을 이해하고 임상사회사업가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실습학생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 최유정 · 정치외교학과(사회복지 부전공) 3학년 윤혜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3학기 이혜나이다.

실습기간 중인 1월 16일에는 김혜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실습지도 교수가 본소를 방문하여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및 차연실 상담위원(본소 실습지도자)과 본소의 법률구조사업 취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교육방향, 발전적인 실습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2018년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간 본소에서는 동계방학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이 진행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은 본소의 법률구조사업을 이해하고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실무지식을 함양하는 학습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가족문제와 공익,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번 실습기간에는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모두 3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실습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최다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강정우 / 최하민

재난 체험 교육 참여

본소 조은경, 김진영, 전규선, 박소연, 천다라 상담위원은 지난 1월 19일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90분간 진행된 재

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연이어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 상황들을 보면서 안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대피 요령을 숙지하고자 이번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재난 체험 프로그램은 지진, 태풍, 화재, 교통사고 등 4가지 재난에 대하여 실제 상황과 동일한 시뮬레이션 공간 안에서 재난을 직접 체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본소 상담위원들은 소화기와 방독면 사용법, 완강기 설치 및 탈출법, 지하철 화재 시 출입문 개폐 방법, 지진 및 태풍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의 교육을 이수하였고, 이를 통해 재난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뿐만 아니라 안전의 중요성을 숙지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호주제 폐지, 기록과 기억' 역사 속 여성의 기록을 기억하는 '여기로' 조성에 참여

본소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주최한 역사 속 여성의 기록을 기억하는 전시회에 호주제 폐지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참여하였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내외부에 '여기로'(여성의 기록을 기억하는 길)를 만들고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호주제 폐지, 기록과 기억'을 주제로 조성 기념 전시를 열었다. 여기로는 역사 속 여성의 기록을 기억하고 여성이 함께 만드는 공유공간이다. 서울여성플라자 1층 갤러리 봄에서는 사진을,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에서는 도서, 단체 간행물, 행정소송 문서 등 기록자료를 볼 수 있다. 본소는 이 전시회에 상당한 사진과 관련자료를 제공하였다. 17일에 열린 전시회 개막식에는 곽배희 소장과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박소현 법률구조2부방이 참석하였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출장법교육

1. 29. 강서지역자활센터 : 가족법 및 신용회복관련 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동국대 현장실습 연수 (1/2–1/26)(6명)
김예진, 김주영, 김창용, 이윤희, 전혜진, 조태현

●이대 현장실습 연수 (1/2–2/28)(2명)
신재현, 허성문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박소연, 정다혜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문득현, 김동규 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월 23일 제주지부 폐쇄와 관련하여 현장점검을 다녀왔다.

곽배희 소장, 서울시 여성계 신년하례회 참석 등

본소 곽배희 소장은 1월 4일 송도지부 개소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했다. 9일에는 본소 교육부 주최의 교원직무연수에서 가족법과 법률구조 역사에 대해 강의 했으며 16일에는 본소를 방문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실습 지도 김혜란 교수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17일에는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주최 신년하례회 및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였고, 26일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30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지.부.소.식

고맙습니다

2018년 1월 자원봉사자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 경수현, 김수윤, 김지후, 김태주, 박소영, 박수열, 박은정, 신수경, 오윤정, 이지원, 이혜민, 이효재, 임주영, 전현정, 홍수아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심미숙, 윤원섭, 이승주, 전성배, 진보라, 천정환 변호사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사대진, 임채룡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김소희, 남서연, 박소언, 이민주 님

후 원

• 평생회원이 되신 분

유혜경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헌, 천정환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총무부

강릉지부

1월 22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이혼 전 부부 대상 자녀양육교육을 실시하였다.

대구지부

대구가정법원에서 이혼관련 출장상담과 조정,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을 실시하였다.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으로 이혼을 고려중인 일방 혹은 부부를 대상으로 개별상담 및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1월 13일, 27일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주말프로그램 '협력하는 부모' 교육을 실시하였다. 장준범, 곽경화, 최현정, 안혜림, 이태현, 윤용원, 박태영, 박기대, 서수연, 나만수, 박경로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2018년 소송구조 사업을 위한 자원변호사단 위촉(총26명)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 7회, 광주시법원 5회 실시하였다.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을 5회 실시하였다. 1월 15일 2018년 자원봉사자 위촉식을 실시하였다. 강은혜, 김민주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순천지부

매주 화요일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교육을 5회, 가사조정을 2회 실시하였다.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31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전주지부

전주지방법원 협의이혼 상담을 5회 실시하였다. 전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법률구조사업 홍보를 하였다. 정아람, 진휘원, 이연주, 이진, 조근원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중구지부

1월 4일~18일 '감정플러스니즈카드' 워크숍을 주 1회, 총 3회기 실시하였다. 박진석, 장상현, 박정두, 정수경, 박은정, 이동건, 홍지혜, 여지은, 정형준, 이수희, 박수열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1월 22일 2018년 총회 및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창원 · 마산지부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고, 가사조정 사례연구 회의에 참석하였다. 박민욱, 이창희, 이재영, 남상업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청주지부

1월 24일 충북 여성정책포럼 2018 제1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춘천지부

허남정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32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2017년 12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7년 12월 한 달 간 접수 · 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0,329건으로 본부가 5,808건, 지부가 4,521건이었다.

본부는 5,221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433건 · 소장 등 서류작성 102건 · 소송구조 52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3,799건 · 화해조정 684건 · 소장 등 서류작성 30건 · 소송구조 8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5,221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7년 11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남녀관계(0.9%→1.4%), 부부갈등(1.9%→2.5%), 위자료 · 재산분할(10.1%→11.5%), 친권 · 양육권(5.2%→5.4%), 인지(1.3%→1.6%), 입양(1.4%→1.9%), 파혼(0.3%→0.7%), 유언 · 상속(5.1%→5.9%), 가족관계등록부(2.7%→3.0%)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파산(3.6%→3.7%),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절차(0.4%→0.7%)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5,221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903건(17.3%), 전화상담 4,054건(77.6%), 통신 및 인터넷상담 263건(5.0%),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18년 1월 본부 상담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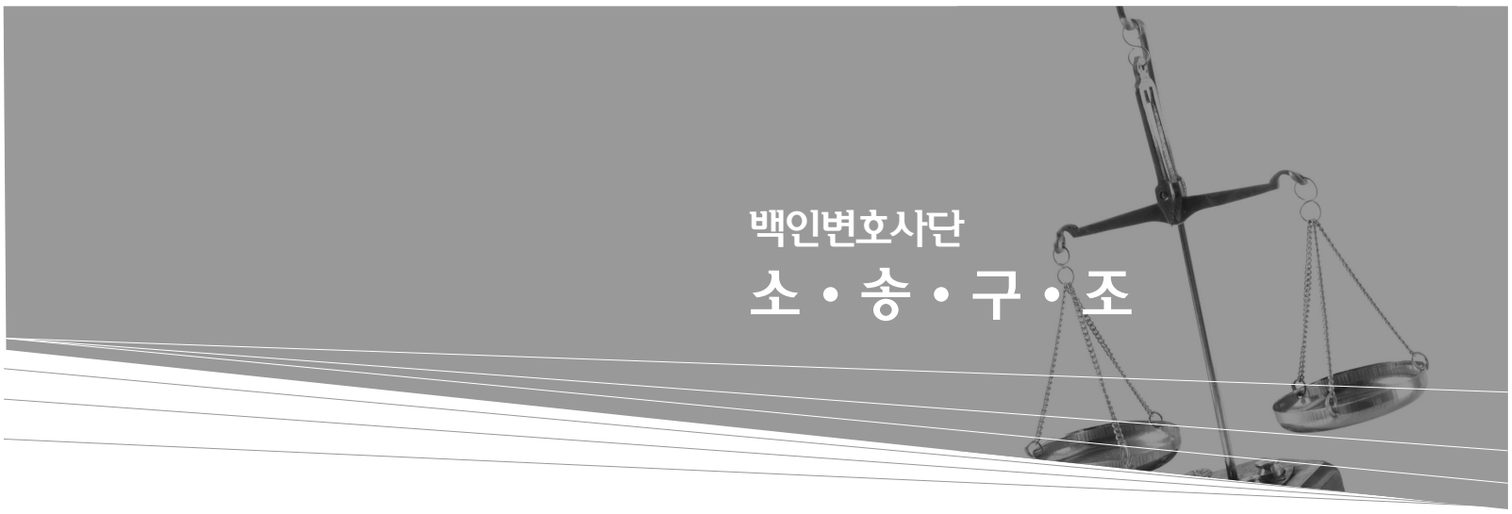
총상담 7,591		
법률상담 (6,983)		
면접	전화	통신
970	5,751	262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440	140	28

* 2018/1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59,995건

지 부	총상담	법률상담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합계			
서울(본부)	5,808	903	4,054	263		지상 1	5,221	433	102	52
강 릉 (033) 652-9555	76	61	14				75		1	
구리 · 남양주 (031) 551-9976	315	50	74				124	191		
군 산 (063) 442-1560	116	39	34				73	42		1
대 구 (053) 745-4501	323	202	37	5		출장 12	256	67		
대 전 (042) 520-5258	220	31	183				214		6	
동 해 (033) 535-0188	100	30	69			출장 1	100			
목 포 (061) 273-2514	168		167	1			168			
부 천 (032) 667-2314	256	54	161				215	41		
성 남 (031) 707-6661	245	115	67	1		출장 20	203	41	1	
수 원 (031) 243-4600	378	110	99			출장 30	239	136	2	1
순 천 (061) 753-9910	147	40	107				147			
중 구 (02)2238-6554	269	194	75				269			
안 동 (054) 856-4200	107	15	77				92	15		
익 산 (063) 851-5113	101	26	74			출장 1	101			
인 천 (032) 865-1120	320	155	163				318	2		
전 주 (063) 244-2930	105	47	44	4	9		104		1	
정 읍 (063) 535-3705	105	40	44				84	18	3	
진 주 (055) 746-7975	142	25	66				91	45		6
창원 · 마산 (055) 261-0280	353	197	94	1			292	59	2	
청 주 (043) 257-0088	141	69	60	1			130	5	6	
춘 천 (033) 257-4688	144	30	20			출장 94	144			
태 백 (033) 554-4004	99	63	23			출장 13	99			
평택 · 안성 (031) 611-4251	134	36	46			출장 22	104	22	8	
제 천 (043) 644-5690	104	55	49				104			
포 항 (054) 283-7555	53	7	46				53			
지부총상담	4,521	1,691	1,893	13	9	출장 193	3,799	684	30	8
총 상담	10,329	2,594	5,947	276	9	출장 193 지상 1	9,020	1,117	132	60

** 2017/12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71,111건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33 CTP-8



백인변호사단

소 • 송 • 구 • 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리던 아내에 대해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17-241

담당 : 차명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9세)와 피고(남, 40세)는 2010년 7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8세, 5세, 여, 6세, 6세)을 두었다. 사건본인1이 태어나면서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기 시작해 3, 6개월 간격으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였다. 2017년 3월경 피고는 원고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배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 원고는 얼굴 전체가 붓고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집을 뛰쳐나와 쉼터에 5일간 피신해 있었다. 원고는 사건본인들이 너무 걱정되어 경찰과 동행하여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집에 가보니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씻기지도 않고, 사건본인1은 아빠가 머리를 때려 아프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수원지방법원 2017. 9. 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6,000,000원을 2017. 9.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4.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시 : 매월 2회, 둘째, 넷째 토요일 11시부터 같은 날 16시까지

나. 방법 및 장소 :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데리러 가고 면접교섭이 종료된 후 데려다 준다.

다. 양육자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5.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더 이상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배우자의 보증으로 발생한 채무 등으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249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9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택시회사 경리직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1980년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였고, 신청인의 배우자는 1980년부터 인테리어 현장 책임자로 성실히 근무했으나, 1997년 지인에게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섰고 보증사고로 인해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998년 배우자는 방광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34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암으로 방광절제 수술을 받고 직장을 그만 두었고, 신청인의 가계상황은 악화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생활비와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은행 및 제2금융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식당 주방 보조 및 청소로 열심히 일하였고,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변제해보고자 2014년경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신청인은 무리하게 일을 한 탓에 2015년경 몸이 뒤틀리는 등 심한 발작증세로 여러 차례 응급실에 실려 갔고, 검진 결과 우울증 진단을 받아, 일을 예전만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신청인은 결국 월 22만원의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해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게 되었다. 신청인은 그로부터 2년째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나, 병의 호전이 없어 장애인등록을 준비 중이다. 배우자 역시 암과 심장질환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수입이 전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7. 9. 21.)

채무자를 면책한다.

어린 자녀를 남긴 채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아내에 대한 이혼 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17-257

담당 : 권성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58세)와 피고(여, 51세)는 1986년 12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전 동거할 때부터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출을 반복하였다. 1989년경 피고는 결국 자녀를 원고에게 맡겨놓은 채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후 원고는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 원고는 일을 할 수 없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녀를 위탁 가정에 맡기기도 했었으나,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 악화된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여 다시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었다. 원고는 피고를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게다가 원고는 최근 척추 수술의 부작용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더 이상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서울가정법원 2017. 8. 2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빚을 진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267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2세)은 직장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였고, 배우자는 1997년경 본인과 신청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3개의 통신사 대리점을 개업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의 배우자는 추가로 대출을 받아 사업초기자금 및 운용자금을 충당하면서, 대기업과 행사를 진행하거나, 홈쇼핑방송을 통해 월 1만대 이상의 휴대전화 개통을 하는 등 높은 실적을 거두었다. 그러던 중 신청인 부부는 대리점 직원이 공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를 고발하지 않은 채 차용증만 받고, 해당 직원이 대리점의 납품을 담당하게 하여 채무변제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대리점 업체등록을 한 후, 신청인 회사로 납품을 하고 자신의 아버지 명의의 회사로 납품대금을 받는 형식으로 회사자금을 또다시 횡령하고 잠적하였다. 해당 직원의 아버지 명의로 설립된 대리점과 거래하였던 타 대리점의 자금결제가 계속 요구되자, 신청인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 시모, 시동생과 함께 식당에서 일을 하였으며, 신청인의 배우자 또한 채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채무에 비해 소득은 형편없었고 결국 신청인 부부 모두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이 약화된 상태이며, 신청인의 배우자는 심근경색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다.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억울하게 발생한 채무를 신청인이 현재 생활상황 상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7. 9. 20.)

채무자를 면책한다.

무책임한 부를 상대로 한 인지, 양육비 청구에서 승소 판결

법률구조 2015-536

담당 : 양창길 변호사

사건명 : 인지 등

내용 : 원고(여, 42세)는 2007년 10월경 피고(남, 35세)와 만나 교제하다가, 2008년 6월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동거를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날 즈음 사건본인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와 상의 하에 사건본인을 낳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단칸방에서 사건본인을 낳아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친정이 있는 강릉에서 살기로 결정했으나 원고의 아버지와 피고 사이에 불화가 생겨 원고는 강릉에, 피고는 서울에서 한동안 떨어져 지내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점점 연락을 하지 않았고, 임신 8개월이 될 무렵에는 피고의 아버지가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가 원고와 함께 살 생각이 없으니 사건본인을 낙태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8년 12월에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피고는 몇 년에 한 번씩 전화로만 연락을 하였을 뿐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피고의 인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9. 20.)

1.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7. 9. 2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400,000원씩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도소에 여러 차례 수감된 남편과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7-85

담당 : 유유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6세)와 피고(남, 51세)는 1995년 8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12세)을 두고 있다. 1998년경 피고가 음주운전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것을 계기로 원고는 피고가 결혼 전부터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도소에 여러 차례 수감되었다. 2005년경 출소한 피고가 원고를 찾아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자 피고는 더 이상 원고를 찾아오지 않았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2013년경 피고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7. 12. 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7. 12.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36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자녀 앞에서 아내에게 폭언을 퍼붓는 남편에 대한 이혼 화해 결정

법률구조 2017-95

담당 : 공성록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반소피고, 여, 25세)와 피고(반소원고, 남, 26세)는 2015년 11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3세)을 두고 있다. 피고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부터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 피고는 주 5~6일 만취 상태로 귀가하여 취침 중인 사건본인을 깨워 괴롭혔다. 원고가 이를 말리면 피고는 사건본인이 보는 앞에서 원고에게 폭언을 퍼붓고 기물을 파손했다. 특히 2017년 1월경 피고는 사건본인 앞에서 원고에게 폭언을 퍼붓고 원고를 "죽여 버리고 싶다"며 협박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1. 8.)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 함)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함)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다음과 같은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가. 2017. 11.부터 2018. 12.까지 : 월 40만 원

나. 2019. 1.부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 월 50만 원

다. 사건본인이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 월 60만 원

라. 사건본인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성년에 이를 때까지 : 월 70만 원

4. 피고와 사건본인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 할 수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

법률상담

가사, 민사, 형사, 파산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접, 서신 및 전화 · 지상 · 순회 · 인터넷 · 출장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도 매주 월요일마다 있다.

화해조정과 소장작성

분쟁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화해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서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소송 관련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소송구조

상담결과 소송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소에서는 무료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소송구조는 상담소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그리고 자원봉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백인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가정폭력피해여성,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가사소송 전반은 물론 필요한 경우 민사, 형사 사건까지 포괄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다문화가정의 법률구조를 위하여 외국변호사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영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파산 · 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 무료 지원

개인신용불량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등의 법적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출장상담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무료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37 CTP-8

가. 정기 면접교섭

1)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2) 사건본인이 성장하여 단독 면접교섭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당분간 원고가 동반하여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아래 마.항에서 정한 양육코칭의 시간을 통하여 원고의 동행 여부를 조율한다).

나.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방학기간 중 :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사건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원고와 피고가 협의한다.

다. 명절(설날, 추석) : 최대 2박 3일의 범위 내에서 사건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원고와 피고가 협의한다.

라. 연락방법 : 원고와 피고는 면접교섭 예정일 2일 전까지 연락하여 면접교섭 실시 여부 및 일정 변경 협의를 완료한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8. 3.경 상담위원과 함께 양육코칭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재판 종료 후에도 사건본인의 발달상황에 맞추어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바. 면접교섭을 실시할 때의 주의사항은 [별지]와 같다.

5. 원고와 피고는 향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이혼 전 별거기간 중의 양육비) 등 일체의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다.

6. 원고와 피고는 각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직장 내 보증으로 많은 채무를 안게 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118

담당 : 신은숙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0세)은 경기도에서 집안의 농사일을 도우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하였다. 신청인의 아버지는 오랜 기간 투병하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신청인은 빚을 떠안고 결혼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신청인은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였지만, 1990년경 신청인이 보증을 섰던 직장상사가 자살을 하면서 상사의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또한 신청인은 다니던 회사가 IMF로 인해 어려워지면서 회사 직원 간에 서로 보증을 서며 대출까지 받았지만, 결국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퇴직을 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퇴직 후 일을 하여 채무를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취직이 쉽게 되지 않아 생계유지도 힘이 들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2016년 7월에는 배우자에게 자궁암이 발병하여 수술을 하였고, 현재는 3개월에 한 번씩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신청인은 강원도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월 115만 원의 급여(실수령액)를 받고 있지만, 월세 45만 원과 아내의 병원비까지 부담하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다 보니, 신청인이 현재 생활상황상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7. 10. 26.)

채무자를 면책한다.

일방적인 혼인신고가 있었을 뿐 남남으로 지낸 법률상 남편과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7-175

담당 : 김영호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7세)와 피고(남, 56세)는 1988년 4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다. 원고는 1984년경 피고를 만나 투병중인 피고의 조모와 전처소생 두 자녀에 대한 연민으로 한 달 가량 피고 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 사이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와 다투다 피고의 집을 나오게 되었다. 1995년경 피고가 한 차례 찾아와 재혼을 위한 이혼을 요구한 바 있으나 흐지부지 되었던 것 외 원고는 피고와 현재까지 연락이나 왕래가 전혀 없는 채로 지내고 있다. 현재 원고는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를 원하지만 서류상 배우자가 있어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가정상담1802.ps 2018.2.7 2:43 PM 페이지38 CTP-8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검정

결과 : 승소(전주지방법원 2017. 11. 1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자폐성 장애로 24시간 보살핌이 필요한 딸의 성년후견인으로 친모를 선임

법률구조 2017-211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성년후견

내용 : 청구인(여, 51세)은 사건본인(여, 26세)의 어머니이다. 사건본인은 자폐성장애1급으로 1998년 7월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현재 사건본인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 일터에서 받아주지 않아 24시간 청구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건본인은 일상생활에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고,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7. 11. 1.)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3. 가. 사건본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성년후견인은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다.

4. 성년후견인은 2018. 1. 31.까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2017. 10. 31.,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 또는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성년후견인은 2018. 11. 30.을 시작으로 매 3년마다 후견사무보고서(제출일: 11. 30., 기준일: 10. 31.)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미뤄온 전남편에게 과거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17-218

담당 : 김경철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56세)과 피신청인(남, 61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17세)을 두었으나, 2001년 11월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신청인이 지정되었다. 이혼 당시 신청인은 위자료 및 양육비 명목으로 총 1,500만 원을 피신청인에게 받는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혼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연락을 끊어버린 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2011년 5월 이혼 당시 약정한 1,500만원에 연15%의 이자를 더한 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과 함께 피신청인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으로부터 2,300만 원을 지급받고 이를 취하하였다. 비록 청구인이 이혼 당시 위자료 및 양육비 명목으로 1,500만 원만을 받겠다는 합의를 하였고 이에 대한 집행도 끝났지만, 이혼 후 14년의 기간 동안 1,500만 원의 양육비는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 매우 부족한 액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15년 가정법률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피신청인에게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5년 11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5. 12.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2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한 이후에도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과거양육비에 대한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구가정법원 2017. 12. 29.)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대구가정법원 2015드단000000 양육비 사건의 2015. 11. 20.자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미지급 양육비 중 300만 원을 이 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2018년 2월 교육강좌

한부모가정을 위한 일일교육

▶ 일시 : 2018년 2월 8일 (목) 오후 2시 ~ 5시
▶ 대상 : 한부모 가정의 모자(사전 접수 필수)
▶ 내용

1. 「한부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엄마를 위한 댄스테라피」

▷ **강의내용 :** 한부모가정 안에서 겪게되는 심리적인 문제들을 자신 고유의 신체움직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여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마음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몸과 마음의 변화를 인식하여 삶의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며 주어진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 치유의 시간

등지교실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하기 위해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 일시 : 2018년 2월 ~ 12월,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8월 휴강)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 정	강 의 제 목	강 사
2월 8일	희 망 : '이제 끝이다' 라는 순간에 피어나는 보석같은 감정	최영주 (HD행복연구소 수석강사)
3월 8일	두려움 : 두려움! 넌 누구냐?	
4월 12일	수치심 : 나의 수치심은 어디에서 왔을까?	
5월 10일	감 사 : 우리 삶에 가장 강력하게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선물같은 감정	
6월 14일	우 울 : 우울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우애령 (사회복지학 박사, 작가)
7월 12일	평 온 : 내 힘으로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기	
9월 13일	분 노 : 뜻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	이서원 (한국분노관리 연구소 소장)
10월 11일	평 안 : 고통 속에서도 안정된 마음을 만드는 법을 배운다	
11월 8일	열등감 : 성장과 변화로 가는 에너지	정윤경 (한국단기가족치료 연구소 교수)
12월 13일	자존감 : '나는 나다'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이혼 전 상담프로그램-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2월 12일 / 26일)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공개강좌

▶ 일시 : 2018년 1월 ~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5월, 8월 휴강)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원장)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시	강 의 제 목
2월 22일	2. 마음의 상처
3월 22일	3. '사랑' 은 무엇이며, 그 진화 과정은?
4월 26일	4. 인간 뇌의 특성
6월 28일	5.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7월 26일	6. 다름과 다양성
9월 27일	7. 외도에 대한 대처
10월 25일	8. 분노 조절 장애
11월 22일	9. 과거 관계가 부부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례들
12월 27일	10. 실제 부부사례로 살펴 본 치료상담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시달리는 비혼모자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 상담을 포함한 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1박2일 자녀동반 캠프

- **일시 : 2018년 3월 30일(금) ~ 3월 31일(토)**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장소 : 용인 에버랜드**
- **내용**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 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무용동작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4. 「용인 에버랜드 체험 활동」

- **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0-5688~9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